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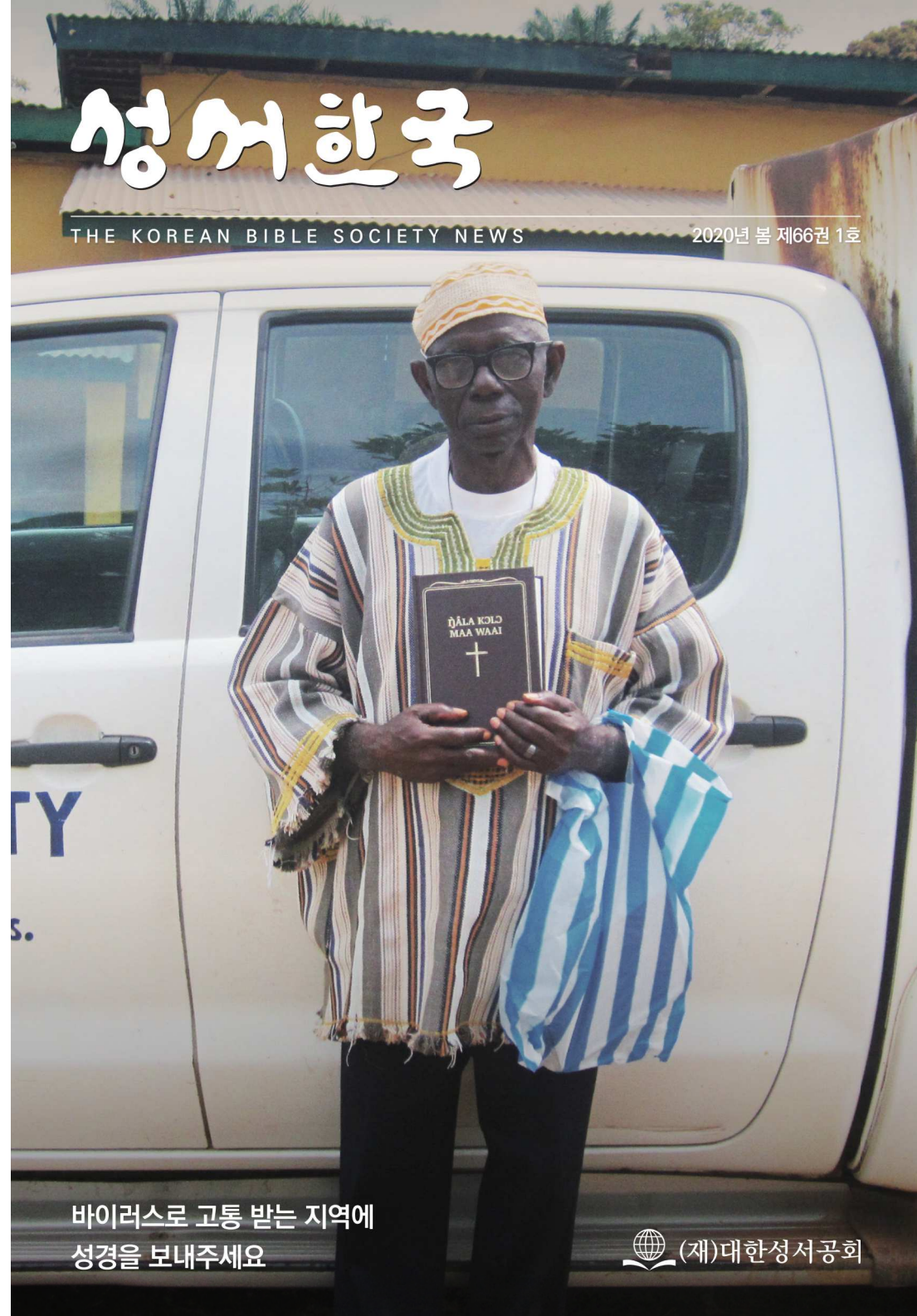
2020 해외 성경보급 프로그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폭력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며, 종교를 이유로 핍박 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담긴 성경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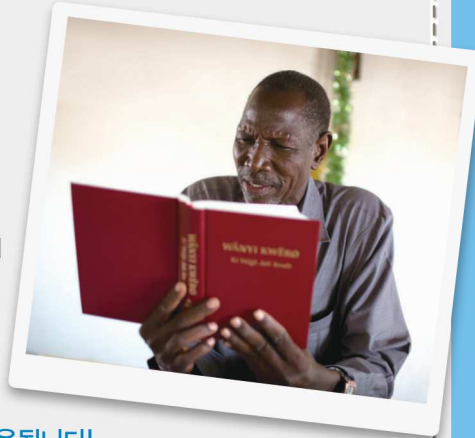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지역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

130여 년 전,
한반도에 서양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 보급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었으며,
한국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미자립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한국

2020 봄 제66권 1호

02 포토에세이

성경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04 커버스토리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지역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08 2020 해외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6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성경을 받은 사람들

앙골라 '은콤비아'
신약전서를 봉헌하다

12 말씀을 만나다

로렘나무(broom, 대싸리나무)

14 후원 이야기

성문교회 미얀마 스고 카렌 부족 성경 전달

16 현장 이야기

위기 속의 기독교인들

18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중남미 지역을 위한 기도

20 대한성서공회 소식

2019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24 대한성서공회 편지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법제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본사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반포센터/홍보진흥본부(모금, 홍보)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출판센터 (108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344번길 110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0년 4월 30일
- 인쇄인·인쇄처 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s://www.bskorea.or.kr
-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성경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플로렌스는 자신의 딸이 장애를 가진
손녀를 버린 이후로 손녀를 돌보아왔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플로렌스에게 성경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손녀에게 눈을 땔 수 없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며 위안을 얻습니다.
저에게 성경은 힘의 원천입니다.
말씀은 길을 잃었을 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면 저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평안을 누립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은 종종 지역 사회,
친척으로부터 고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손녀를 돌보며 성경을 읽는 플로렌스(짐바브웨)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말씀이 전하는 위로

-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지역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라이베리아와 기니, 시에라리온 3국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따뜻한 기온과 풍부한 자원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삶까지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라이베리아와 기니, 시에라리온의 GDP(국내총생산)경제지표는 각각 세계152위, 134위, 149위로 매우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라이베리아의 경우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시에라리온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내전을 겪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을 몰고 온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 3월, 기니에서 출혈과 열을 동반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라이베리아와 기니, 시에라리온 3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바이러스는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발생시켰고, 낙후된 의료 환경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WHO 세계보건기구 발표 기준).



▲ 에볼라 치료 센터(좌)와 치료 센터로 성경을 보내는 모습(우)

바이러스가 퍼진 지역의 사람들은 한 순간에 가족과 격리되거나 가족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두려움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일가친척이 모여 몸을 씻기고 입을 맞추며 작별하는 서아프리카의 장례 풍습은 바이러스를 더욱 창궐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의 빈민가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정부가 만들어 낸 거짓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이 격리치료소에 있는 환자

들을 '탈출'시키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착신앙을 가진 이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술사가 해결할 저주로 인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대한 무지와 정부에 대한 불신, 국민의 60%가 믿는 토착신앙 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마음의 평안이 절실했습니다.

말씀의 위로로 버텨낸 사람들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해당 국가 성서공회들은 환자들이 사용할 음식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당시 감염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센터에 있는 환자들, 아픈 가족을 격리시킨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회복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국 850개의 교회에 모여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 생필품과 함께 성경을 지원받은 사람들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 남겨진 사람들

현재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종식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은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감염자였던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은 막막해진 생계에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은 아동 노동 착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지면서 전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음식, 세면도구 및 의복이 전달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지나간 지금, 여전히 필요한 것은 많지만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 진행 모습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일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와 소망의 힘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서공회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한 상담으로 감염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당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생계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에게 문자교실을 열어 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성서공회와 기니성서공회, 시에라리온성서공회는 교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한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에서는 성경을 통해 글을 가르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건강, 위생 및 행정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에서 글을 가르치며 전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인 에스더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큰 혼란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면서 에스더는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로 마음 속에 있던 원망의 감정이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할 때 오히려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기도 했죠. 저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됨에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경 나눔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는 에스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때입니다. 지구 반대편 더 힘든 환경에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 시켰습니다.

바이러스 피해 지역 국가들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2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6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도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럽 중동 지역 16개국

러시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시리아, **아랍-이스라엘**,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팔레스타인

미주지역 16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쿠바성서위원회,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지역 27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상투메,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7개국

남태평양, 네팔, 몽골,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굵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20.3.23 기준)

앙골라 '은쿰비어' 신약전서를 봉헌하다



▲ 은쿰비어 신약전서를 들고 활짝 웃는 메네프

메네프(앙골라)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앙골라성서공회에서 마침내 은쿰비어(Nkumbi)로 번역된 신약전서를 봉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메네프와 친구들은 쿠네네강 너머 장공고(Xangongo)시에서 거행되는 신약전서 봉헌 예배에 참여해 찬양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네프는 성가대원들과 함께 이 축하행사에 맞추어 입을 웃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전서 한 권을 갖기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봉헌식 날, 성서공회에서는 은쿰비어 신약전서 봉헌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은쿰비어 신약전서를 저렴한 가격(500

관자, 약 1100원)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메네프에게는 그 돈마저도 없었습니다(앙골라에서 신약전서는 보통 4000원이 넘는 1900 관자에 판매됩니다). 고심 끝에 봉헌식이 있던 9월 21일, 메네프는 여러 색깔로 물들인 종려나무 잎을 손으로 짠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장공고로 향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만든 이 바구니를 팔아 신약전서를 살 거예요.”

다행히 메네프는 바구니를 팔 수 있었고, 자신의 모국어인 은쿰비어로 된 신약전서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우리 말인 은쿰비어로 된 신약전서를 갖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기 쓰인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시관야마어(Oshikwanyama, 앙골라 남부에서 널리 사용된 언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번역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말로 된 성경 전서를 갖게 될 때까지 계속 번역을 해나갈 수 있길 기도해요.”

이 날 은쿰비어 신약전서의 도착을 함께 축하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루치아 타쿨라도 있었습니다. 루치아는 은쿰비 전통음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치아는 수 년 동안 악단을 이끌어오며 전통적 가락에 성경 말씀을 은쿰비어 가사로 입히고, 이 곡들을 노래해 왔습니다. 은쿰비어로 출간된 단편성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약전서의 출간을 통해 루치아의 곡에 다양한 가사가 붙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요가수 루치아 타쿨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경 번역 전문가인 리카 할메-버네킹 박사는 루치아와 그녀의 악단이 성경 번역 워크샵에서 전통 가락에 맞춰 성경의 말씀을 가사로 노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양식 음악에 맞춰 찬송을 부르는 것에 익숙해진 많은 성경 번역자들에게는 루치아의 찬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는 전통음악을 ‘이교적’이라고 간주하고, 성경 말씀을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음악은 모국어로 번역된 복음을 나누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은쿰비어 신약전서를 봉헌하며 메네프, 루치아를 비롯한 쿰비 부족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고,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성서를 소리 내어 읽으며 봉헌을 축하하였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봉헌식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쿰비족 지도자들, 지방 정부 대표들과 기자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은쿰비어 신약전서가 메네프, 루치아 및 쿰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진행중인 은쿰비어 구약전서 번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로템나무와 야생염소

로템나무(broom, 대싸리나무)

관련 구절

로템(rothem) 왕상 19:4-5;
욥 30:4; 시 120:4

이름에 대한 논의

많은 학자들은 로템(rothem)을 성지와 아라비아의 거친 광야에서 자라는 관목인 래탐레타마(white broom)로 본다. **왕상 19:4**에 나오는,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이야기에 나오는 로템나무에 대한 언급은, '광야'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황폐한 모습을 자세히 보여 준다. **시 120:4**의 로템(rothem)에 대한 언급으로 학자들은 그 나무가 확실히 로템

나무(broom)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템나무의 줄기와 잎에 있는 기름이 불을 만들기 때문이다. 래탐레타마는 성지 전체에 걸쳐 있는 산지, 바위가 많은 곳, 협곡, 모래가 있는 곳, 특히 사해 근처, 길르앗, 갈멜 산, 시리아 광야, 페니키아 해안에서 자란다.

모양

관목보다 더 큰 덤불인 로템나무는 2미터 높이까지 자랄 수 있다. 로템나무에는 작은 가지가 많고 잎이 적으며 흰 꽃송이들이 산비탈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준다.

번역

일부 현대 번역본들은 **왕상 19:4**에서 “큰 덤불”(CEV), “나무”(GNB), “덤불”(NCV)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 식물을 개별 종(species)의 이름으로 부르는 지역에 있는 번역자들은 (그늘이 될 만큼 충분히 큰 식물이라면)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관목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히브리어 로템(rothem)을 음역할 수 있다. 그 외에 ‘작은 교목’이나 ‘관목’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다.

시 120:4에서는 아주 뜨겁다는 느낌을 줄 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매우 뜨거운 불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의 이름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욥 30:4에 나오는 로템나무에 대한 언급은 사본상의 문제와 주석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양한 번역들을 시도한다. RSV는 “로템나무의 뿌리들을 지피기 위해 채취한다.”로 번역한다. GNB와 NIV는 로템나무 뿌리를 ‘먹는’ 가난한 서민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믿을 만한 자료에서는 로템나무 뿌리에 독이 있다고 한다. 성경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로템나무 뿌리는 ‘먹는 것’이 아니라 ‘태울 수 있는 것’이라는 좋은 증거가 있다. 따라서 해니 쿤(Hanni Kuhn)은 난해한 이 구절의 번역을 “로템나무 뿌리는 불을 피우기 위해 채취한다.” 또는 “땀을 만들려고 로템나무로 숯을 만든다.”로 제안한다. 🌿

출처: Robert Koops,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12-14;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UBS, 2012).



▲ 로템나무 꽃

말씀의 씨앗을 심다

- 성문교회 미얀마 스고 카렌 부족 성경 전달



▲ 미얀마 성경기증을 기념하는 성문교회

말씀의 단비를 기다리는 사람들

성문교회(고동훈 목사)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미얀마 스고 카렌 부족에게 <스고 카렌어 성경>의 제작을 후원하고 성경을 직접 전하기 위해 2019년 12월 9일 미얀마로 향했습니다.

미얀마는 대표적인 불교국가로, 135개의 소수 부족들과 약 200개의 부족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88%가 불교, 기독교는 6%에 불과하지만 미얀마의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 부족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기독교인 수에 비해 성경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스고 카렌 부족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

미얀마 '레이 인 수 야 칫 교회'(Lay Ein Su Ywa Tit Church)를 방문해 성문교회의 귀한 후원으로 마련된 총 4,500부의 <스고 카렌어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이 전해지자 스고 카렌 부족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여러 간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 준비한 성경을 스고 카렌 부족(좌측)에게 전달하는 황정식 원로목사(좌측 네 번째)와 고동훈 담임목사(좌측 세 번째)



“살아있는 말씀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이 성경과 축복을 제가 다니는 교회와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 아무(스고 카렌 부족 교역자)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온 나눔

‘레이 인 수 야 칫 교회’(Lay Ein Su Ywa Tit Church)에서 진행된 성경 기증식에는 미얀마 스고 카렌 부족 41개의 교회가 참석해 성경을 받는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성문교회는 기증식 이후 현지 가정을 방문해 성경을 전했으며 미얀마성서공회를 방문해 미얀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문교회의 성도 21명이 참여한 이번 미얀마 성경 기증식은 전달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고자 왔던 성도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책을 드리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걸 필수더라”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영적인 용량이 더 커진 거 같은 부딪힘을 느꼈습니다”

- 성경 기증식 후 성문교회 기도회에서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 성경을 직접 전달하게 된 성문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아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린 스고 카렌 부족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다. 성문교회 성도들이 기증식을 통해 전달한 성경은 한 알의 씨앗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미얀마 땅에 복음의 길이 열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미얀마 땅에 여전히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자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스고 카렌어 성경>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

위기 속의 기독교인들

: 레바논성서공회 마이크 바소 총무와의 인터뷰



*2019년 10월 레바논성서공회 총무 마이크 바소 박사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입니다.

Q: 중동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외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성서 사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주세요

MB: 중동에는 다양한 박해가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환영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생존의 문제

를 겪고 있습니다. 집과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빼앗긴 성경은 버려지고 불태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도움은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척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비교적 가벼운 것에서부터 성경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것에 이르

기까지 박해의 폭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 성서공회는 여러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레바논에는 백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레바논 성서공회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요?

MB: 현재 저희 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난민이 약 백만 명, 그리고 비 등록된 약 오십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거리에서 우리가 지나치는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난민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 보급 상처 치유 문자 교육

레바논성서공회는 **첫째, 성경**으로 이들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바논에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처 치유**입니다. 레바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트라우마를 가진 가정들에게 다가가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450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을 레바논에

서 훈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명 중 6명은 난민 가정의 자녀입니다. 학교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을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Q: 레바논과 전세계에서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MB: 저는 여러 중동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격려할 생각으로 방문한 사역지에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며 돌아옵니다. 박해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총을 빌어주거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최선은 지속적인 기도와 더불어, 비록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은총을 받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중남미 지역을 위한 기도

❶ 콜롬비아

콜롬비아 사람들과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콜롬비아로 피난 온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의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과 교육자들이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번역작업의 번역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❷ 에콰도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서공회가 모든 세대, 특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출판 프로젝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성경의 메시지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❸ 볼리비아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 최선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볼리비아 당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폭력 피해자로 고통 받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❹ 아르헨티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의 장벽을 넘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중인 네 가지 번역 프로젝트와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❺ 가이아나

가이아나성서공회가 진행하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선 성서공회 사역을 위해 더 많은 후원자들을 만나고, 지역 교회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성, 아동, 교도소 수감자, 난민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저희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❻ 페루

진행 중인 아푸리막 지역의 퀘추아 부족과 마초겐카로 부족의 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난한 아이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영양을 제공하는 '생명의 빵'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페루에서 성경적 가치를 통해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❼ 우루과이

이 나라의 성경 사역이 축복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 국민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서공회가 행하는 사역이 모든 개인에게 전달되어,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형식과 번역으로 성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전 세계 3,39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다

- 2019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 조친어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데이비드 홍 목사

2019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서를 가지고 있나요?



성서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보급되고 있나요?



▲ 2019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인구, 언어통계

2019년 말 기준으로 성경전서는 총 7,359개의 언어 가운데 69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신약성서는 1,542개의 언어로 단편성서는 1,159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나 전 세계 언어 절반 이상인 3,964개의 언어는 아직도 번역된 성서가 없는 상태이다.

이로써 전 세계 57억 명은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7억 9천 3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도 4억 6천 3백만 명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총 1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를 기다리고 있다.

2038년까지 1200 개의 성경을 번역하도록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성경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6억 명에게 성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1200개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마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20년 2월

번역 프로젝트 진행 현황

1,200
성서번역

63 완료
277 진행중
860 남음



범례 ■ = 5 언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비전



가장 많은 성경이 봉헌된 해



▲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통해 2019년 완성된 번역 프로젝트



▲ 자신들의 언어로 된 첫 성경전서를 들고 있는 말라위의 엘룸웨 부족 여성들

2019년은 지난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성경이 봉헌된 해였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각 성서 공회들이 한 해 동안 6억 1천 7백만 명이 사용하는 90개 언어로 성경을 봉헌함으로써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성경전서로 봉헌된 언어 중 하나가 말라위에서 230만 명이 사용하는 엘룸웨어이다. 성경을 갖게 된 엘룸웨 부족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봉헌되는 새 성경의 거대한 모형을 들고 치링가 마을을 누비며 행진하였다.

미얀마 첫 번역 프로젝트

대한성서공회는 130여 년 전 다른 나라 성서공회들의 후원으로 최초의 우리말 성경 번역과 출판, 보급을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일원으로서 미얀마의 성경 번역과 출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미얀마 소수민족 성서 번역 지원과 기증 프로젝트를 통해 미얀마 소수민족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게 되어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

번역 진행 현황



지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까지,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과 시민들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엘살바도르성서공회의 파블로 곤잘레스 총무에게서 사진과 함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대피소에 격리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이 성경들은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들이 기증한 품목입니다.

제가 이전에 감사의 편지에도 말하였듯이

이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대한성서공회는 더 많은 분들에게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팩스



(02-2103-8896)로
전송해 주세요.

우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대한성서공회
홍보전홍분부)으로 발송해 주세요.

02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농협은행 355-0025-0990-53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수협은행 033-01-085327

우체국 011916-01-000076

후원문의

Tel. 080-374-3061(수신자 부담)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재)대한성서공회

신청인

(서명)

교회명

직분

휴대전화

집 전화

주소

☐ 우편물거부

☐ 소식지 이메일 신청

이메일

☐ 매월 1만원 (성경 2권)

☐ 매월 5만원 (성경 10권)

☐ 매월 2만원 (성경 4권)

☐ 매월 10만원 (성경 20권)

☐ 매월 _____ 원 (성경 _____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은행명 _____ (휴대전화번호로 된 계좌 또는 카카오페이 계좌 등록X)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휴대전화 _____

예금주 생년월일(주민등록증 상) _____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_____

(서명)

년 월 일